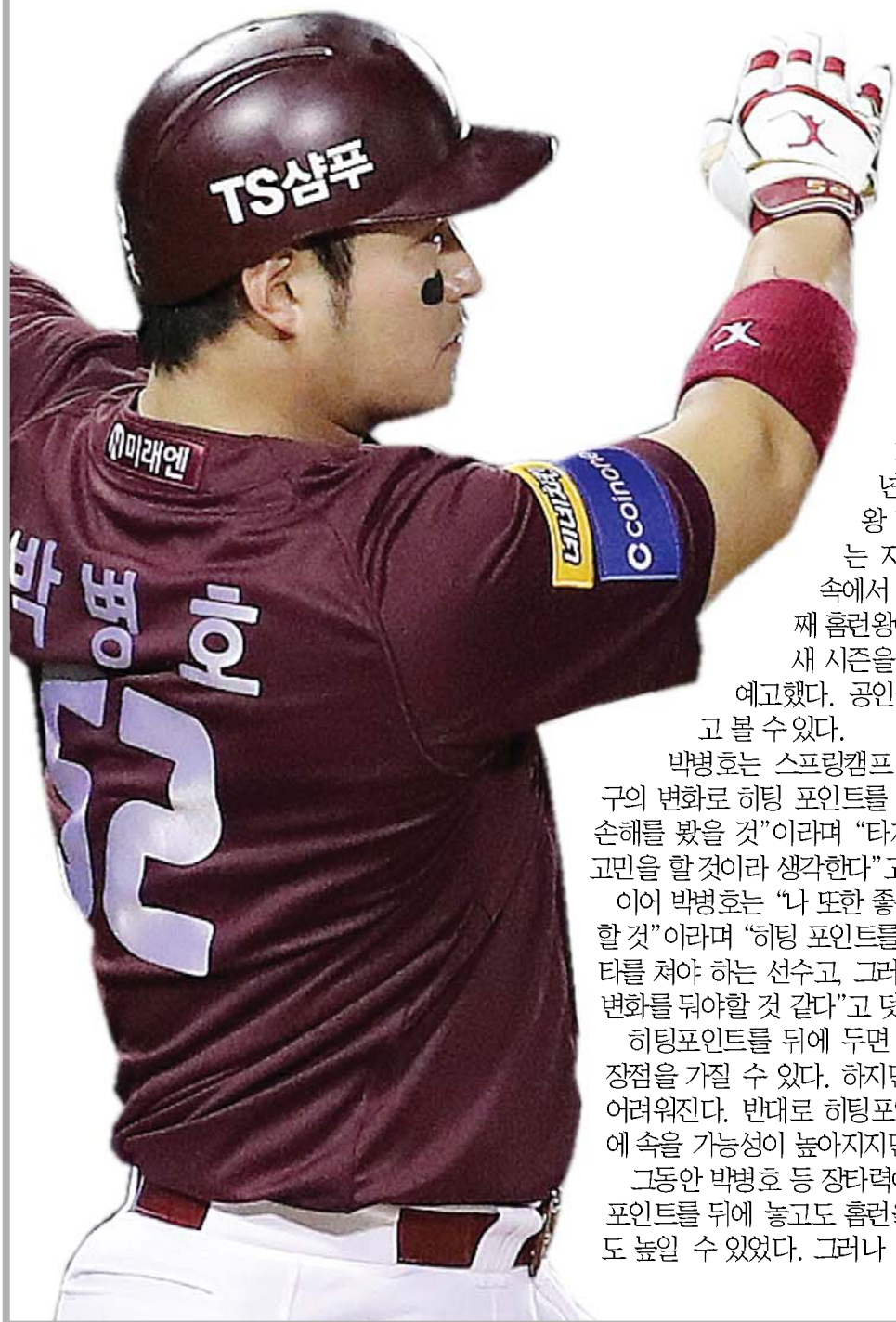


# 박병호-김재환, 이미 시작된 거포들의 '홈런 전쟁'



스프링캠프가 시작됐다. 선수들은 저마다 목표를 갖고 2020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34), 두산 베어스 김재환(32)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 간 KBO리그의 홈런왕은 박병호와 김재환이었다. 김재환은 2018년 44홈런으로 데뷔 첫 홈런왕 타이틀을 가져갔고, 박병호는 지난해 저반발 공인구 도입 속에서 33홈런을 때려내 개인 5번째 홈런왕에 등극했다.

새 시즌을 맞이해 둘은 나란히 변화를 예고했다. 공인구의 변화에 발맞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박병호는 스프링캠프 출구 전 인터뷰에서 "공인구의 변화로 히팅 포인트를 뒤쪽에 두고 있던 타자들은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타자들이 이번 겨울에는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병호는 "나 또한 좋은 타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할 것"이라며 "히팅 포인트를 앞에 둘 생각이다. 나는 장타를 쳐야 하는 선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히팅 포인트에 변화를 줘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히팅포인트를 뒤에 두면 변화구에 대처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타구에 힘을 실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히팅포인트를 앞에 놓으면 변화구에 적응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장타는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박병호 등 장타력이 있는 선수들의 경우 히팅포인트를 뒤에 놓고도 홈런을 양산해왔다. 타격 정확성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박병호는 어느 정도 손해를

## 지난 2년간 KBO리그 홈런왕 차지 새시즌 바뀐 공인구 맞춰 변화 모색

감수하면서도 장타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재환도 캠프 출국을 앞두고 변화를 언급했다. 김재환은 지난해 공인구 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로 꼽힌다. 2018년 44개였던 홈런 수가 지난해 15개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김재환은 "공인구의 영향보다는 내 스윙폼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공인구의 영향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공인구의 영향으로 비거리가 줄면서 장타를 의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격 밸런스가 흔들렸다는 설명이다.

김재환은 "과거 영상도 많이 찾아보면서 예전 좋았을 때의 폼을 떠올리고 있다"며 "꼭 2018년의 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맞는 좋은 폼을 찾으려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타격폼에 변화를 줄 생각임을 밝혔다.

두 선수 모두 구체적인 홈런 수치를 목표로 내걸지는 않았다. 단,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을 내겠다는 의지는 같았다. 김재환은 "홈런 숫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매년 잘하고 싶을 뿐"이라며 "두산의 통합우승 외에 개인 목표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병호 역시 "지난해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홈런보다 타점에 욕심이 난다. 지난해 100타점을 못한 것이 아쉽다"며 "홈런도 지난해보다는 더 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프로야구에서는 선수들의 개인 타이틀 경쟁도 팬들에게 매우 큰 흥미 요소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홈런 타자들의 대포 경쟁이 가장 큰 주목을 받는다. '홈런왕' 박병호와 김재환이 공인구에 대처하는 자세도 새 시즌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캔자스시티, SF 꺾고 50년 만에 슈퍼볼 '우승'...마흐스 'MVP'

마흐스, 쿼터백 역대 최연소 슈퍼볼 최우수선수



패트릭 마흐스가 3일(한국시간) 마이애미에서 열린 슈퍼볼 챔피언결정전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뒤 환호하고 있다.

쿼터백 패트릭 마흐스(25)가 이끄는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를 꺾고 반 세기 만에 슈퍼볼 정상에 올랐다.

캔자스시티는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NFL 챔피언결정전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를 31-20으로 제압했다.

캔자스시티는 한 때 10-20까지 뒤졌지만 4쿼터 막판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1970년 이후 무려 5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2번째 슈퍼볼 우승이다.

반면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렸던 샌프란시스코는 상대 쿼터백 마흐스를 막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캔자스시티의 날카로운 '창'이 샌프란시스코의 두터운 '방패'를 뚫었다.

마흐스의 손에서 시작된 패싱은 샌프란시스코의 '잔뜩 수비'를 뚫어냈다. 샌프란시스코는 올 시즌 경기당 상대 팀에게 패싱 야드를 169.2야드 밖에 내주지 않았다.

경기 초반까지 상대 수비에 막혀 고전하던 마흐스는 이날 42차례 패싱을 시도해 26차례 성공(28%야드)을 시키며 '슈퍼스타'의 진면목을 발휘했다. 중요한 4쿼터에 만 2차례 터치다운 패스를 배달하는 등 맹활약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마흐스는 슈퍼볼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처음 플타임으로 나섰던 지난해 리그 MVP에 뽑혔던 마흐스는 NFL 3년 차에 리그와 슈퍼

볼 MVP를 석권하며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특히 그는 24세 158일의 나이로 슈퍼볼 MVP를 차지해 역대 최연소 슈퍼볼 MVP를 받은 쿼터백으로 이름을 남겼다.

마흐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멋진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려 한다"며 "캔자스시티여, 우리가 해냈다"고 환호했다.

이날 2쿼터 초반까지 10-3으로 앞서가던 캔자스시티는 샌프란시스코 특유의 러싱 게임에 고전하며 전반을 10-10으로 마쳤다.

이후 상대 로비 굴드에게 필드골을 내줬고 라힘 모스터에게 터치다운을 허용하며 10-20까지 뒤졌다.

패색이 짙던 4쿼터부터 캔자스시티의 뒷심이 빛났다.

경기 종료 6분13초를 남기고 마흐스의 패스를 받은 트래비스 켈시가 터치다운을 성공하며 17-20으로 추격했다. 이어 경기 종료 2분44초 전에는 대미언 윌리엄스의 터치다운으로 24-20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1분12초를 남기고 대미언 윌리엄스가 38야드 러싱 터치다운을 성공, 30-20까지 점수를 달아나 사실상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결국 캔자스시티는 남은 시간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고 반 세기 만의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 '호주오픈 2연패' 조코비치 나달 제치고 세계랭킹 1위

호주오픈 테니스 2연패에 성공한 노박 조코비치(33·세르비아)가 세계랭킹 1위 자리를 탈환한다.

남자프로테니스투어(ATP)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코비치가 3일(한국시간) 발표될 예정인 세계랭킹에서 라파엘 나달(스위스)을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라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종전까지 조코비치는 세계랭킹 2위, 나달이 1위를 마크했다.

조코비치는 앞서 2일 열린 2020 호주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4시간에 걸친 혈투 끝에 도미니크 팀(오스트리아)을 세트스코어 3-2(6-4 4-6 2-6 6-3 6-4)로 눌렀다.

이로써 2019년에 이어 대회 2연패에 성공한 조코비치는 개인 통산 8번째 호주오픈 정상에 오르며 이 대회 역대 최다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회 8강에서 탈락한 나달을 압도한 조코비치는 기존 9720점인 포인트가 대폭 상승, 1만235점인 나달을 제치고 1위 자리에 복귀하게 됐다. 조코비치의 세계랭킹 1위 탈환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만이다.

뉴스1

## '3경기 연속골' 손흥민, BBC 이주의 BEST 11 선정

최근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이 영국 BBC 선정 '이주의 베스트일레븐'에 뽑혔다.

BBC는 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주의 베스트11'을 발표했다. 손흥민은 3-4-3 포메이션의 최전방에 모하메드 살라, 호베르투 피르미누(이상 리버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이날 오전 영국 런던의 토트

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5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서던 후반 26분 쐐기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리그 7호, 올 시즌 13호골(EPL 7골·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5골·FA컵 1골)이자 지난달 23일 노리치시티전(EPL 24라운드), 26일 사우샘프턴전(FA컵)에 이은 세 경기 연속골이다.

BBC는 "토티넘이 손흥민에게 원하던 퍼포먼스가 오늘 나왔다"며 "해리 케인의 부재로 토티넘은 최전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흥민은 타고난 공격수는 아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노력했고 그에 맞는 득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BBC는 아울러 손흥민이 호셉 과르디올라 체제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총 5골을 넣어 제이미 바디(레스터 시티·6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



었다는 점도 조명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2018-19시즌 UCL 8강 1·2차전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3골을 터트리며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한편 토티넘 선수는 손흥민과 함께 미드필더 스티븐 베르바인,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베스트일레븐에 이름을 올렸다.